

한국 첫 우주인 배출 광주 과학고 표정

“광주가 해냈다, 이소연 만세” 환호 또 환호

농악부·관현악단 등 축하 공연 분위기 띄워

카운트다운 행사 교사·학부모 참석 축제 만끽

한국인 첫 우주인을 배출한 광주과학고에서는 이소연(29)씨가 우주로 출발한 8일, 학생과 교사, 학부모, 동네 주민 할 것 없이 모두가 축제 분위기를 만끽했다.

이씨가 타고 있는 소유즈호가 오후 8시16분 발사되자 과학고 강당에 모인 학생 등 300여명은 일제히 “만세”를 외치며 이소연씨의 비행 성공과 무사 귀환을 기원했다.

발사를 앞두고 카운트다운하는 TV 진행자의 목소리가 대형화면에서 흘러 나오자 침묵이 극에 달하던 ‘제로(0)’를 가리키는 순간, 강당 안은 뜨거운 함성으로 가득 찼다. 이씨를 태운 화면 속의 소유즈호가 마치 과학고 강당을 채운 후배들의 열기로 솟구치는 듯했다.

과학고 학생 김경민(17·2년)군은 “이소연 선배의 후배라는 사실이 너무 자랑스럽다”며 “머칠 전부터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막상 화면을 통해 선배가 우주로 향하는 모습을 보니 감개무량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강당에서 열린 카운트다운 행사에는

과학고 전교생 171명과 교사들 뿐 아니라 거의 모든 학부모들이 참석해 동문의 우주비행을 축하했다.

학부모 서남경(47·광주시 남구 봉선동)씨는 “전교생이 기숙사 생활을 하기 때문에 과학고 출신이라고 하면 다들 가쪽처럼 느껴진다”며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불어넣어준 이소연씨에게 고마움 따름”이라고 말했다.

카운트다운 행사에 앞서 열린 축하 공연에서는 광주학생 관현악단이 엘가의 ‘위풍당당 행진곡’ 등을 연주했고, 합창단은 ‘우주자전거’ 등 동요로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학부모 김지윤(47·광주시 동구 산수동)씨는 “제2, 제3의 이소연이 광주과학고에서 다시 배출될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계기가 된 것 같다”며 “이소연씨는 이미 학교의 자랑인 것을 넘어, 광주 그리고 한국의 새로운 아이콘이며 상징이 됐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4시부터는 운동장에서 대충중학교 농악부의 축하공연과 물론 캣 발사 시연 등이 진행됐다. 이어진 응원전에서는 과학고 학생과 교사들



8일 오후 8시16분39초, 광주 출신 한국 최초의 우주인 이소연씨를 태운 소유즈 우주선이 발사되자 이씨의 모교인 광주과학고 강당에서 안순일(앞줄 오른쪽에서 세번째) 광주시교육감과 학생, 교사, 학부모 등 300여명이 환호하며 박수를 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이 국가대표 축구 응원 집단 ‘오~ 필승 코리아’에 맞춰 ‘우주강국 코리아’를 외치며 힘을 보탰다.

학교 관계자는 물론 동네 주민들도 행사를 지켜보며 광주과학고의 한국 첫 우주인 배출을 축하했다.

응원에 참가한 정기상(17·2년)군은

“이소연 선배가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할 생각”이라며 “학교에 찾아와 후배들에게 다정스럽게 대해주던 선배의 모습이 떠올라 감동이 곱절이 된 듯하다”고 말했다.

김우중 교장은 “한국의 경사를 맞은 오늘, 전국의 이목이 우리 학교에 집중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우주인 이소연씨와 같은, 또는 더 나은 후배들을 배출해 한국 과학의 미래를 우리의 아이들이 책임질 수 있도록 노력을 늦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정필기자 camus@kwangju.co.kr

■ 한국 첫 우주인 탄생 이모저모

○ 우주선 발사 모습이 생중계된 서울 시청앞 광장에는 한국인 최초의 우주인 탄생 장면을 지켜보기 위해 모여든 시민들로 이른 시간부터 축제 분위기가 일어났다. 저녁무렵부터는 피근길 직장인들까지 가세하면서 시청 앞 광장은 발디딜 틈 없이 붐볐다. 행사장 주변에는 한국천문연구원, 한국과학문화재단,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우주 관련 기관들의 부스가 설치돼 첫 한국인 우주인 탄생의 분위기를 한껏 돋우었다.

우주선이 무사히 발사되자 시청 앞 광장에 모인 시민들은 일제히 환호성을 지르며 한국인 최초 우주인의 탄생을 축하했다.

○ 고흥 ‘나로 우주센터’에서 근무하는 40명의

고흥 나로우주센터 “우주산업 부흥 계기”

중앙아 고려인 “한국 위상 더 높아질 것”

연구원들은 대한민국 첫 우주인 이소연(29)씨를 태운 소유즈 우주선 발사일인 8일 기대감과 함께 부담감을 드러냈다.

우주센터는 올해 9월 준공 예정으로 마무리 시설 공사가 한창진행중으로 민경주(54) 센터장은 13번째 우주센터 보유국에서 뒤늦게나마 한국인 우주인이 탄생했다며 우주 산업 부흥의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일부 연구원들은 오는 12월 센터에서 이뤄지는

자체 제작 위성 발사를 꼭 성공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보이기도 했다.

○ 한국 최초 우주인의 탄생을 중앙아시아 한인들도 반색했다. 특히 러시아 로켓 소유즈호의 발사장, 바이코누르 기지의 소재지 카자흐스탄에 거주하는 고려인들은 한국 최초 우주인의 우주행 준비과정을 매스컴을 통해 지켜봤다며 기쁨과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카자흐 교민사회도 기대감을 표출하고 있다.

교민들은 전쟁으로 한때 세계 최빈국으로 전락했던 ‘조그마한’ 한국이 첫 우주인을 배출하면서 카자흐는 물론 전세계에서 한국의 위상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이씨의 무사귀환을 빌었다.

○ 소유즈 우주선의 발사를 기념해 이소연씨의 고향마을인 주민들이 심은 목련나무도 하얀 꽃망울을 터뜨렸다.

소유즈 우주선이 발사되는 8일 광주 서구 풍암 생활체육공원의 기념식수 공간인 ‘행복을 가꾸는 동산’에 있는 3.5m 높이의 ‘이소연 목련나무’는 밝은 햇살 속에 꽃을 활짝 피웠다.

이 나무는 이씨의 고향마을인 광주 서구 광천동 주민들이 대한민국 첫 우주인의 탄생을 기념해 지난달 20일 심은 것으로 이씨가 무사히 귀환하면 표지석도 설치할 계획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고흥=주각중기자 gju@kwangju.co.kr

“우주 선진국 향한 드림 스타트 날”

이명박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은 8일 한국인 첫 우주인 탄생과 관련, “오늘은 우주 선진국을 향한 꿈의 출발, ‘드림 스타트’의 날로 기록될 것”이라며 “한국인 첫 우주인 탄생은 온 국민의 기쁨이고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큰 희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우리의 출발이 결코 빠르다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불굴의 의지와 노력이 있다. 하겠다는 마음만 먹으면 꿈을 현실로 만들어 내는 능력이 어떤 나라, 어떤 민족보다도 뛰어나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19세기는 바다를 정복한 나라가, 20세기는 하늘을 정복한 나라가 앞서갔다. 21세기는 우주의 세기로 우리도 이제 그 대열에 합류했다”면서 “12월이면 우리 손으로 만든 과학기술위성 2호가 발사되고, 2017년에는 1.5t급 위성 발사체가 개발되며, 2020년에는 우리 땅에서 우리 발사체로 달탐사위성을 발사하게 돼 우리도 당당히 세계 7대 우주강국으로 들어서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소연씨 무사귀환 기원 합니다”

광주시 ‘촛불 한마음 대회’ 등 행사 다채

대한민국 첫 우주인 이소연씨의 고향인 광주에서 이씨의 성공적인 임무수행과 무사귀환을 기원하는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진다.

광주시는 10일 오후 7시 시청 문화광장에서 시민·사회단체총연합회와 공동으로 ‘대한민국 최초 우주인 성공기원 촛불 한마음 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는 가수 조항조, 김용민, 박진도, 하동진씨 등의 축하공연이 펼쳐진다. 이어 이씨의 성공적인 임무수행과 무사귀환을 기원하고 2013하계유니버시아드 유치를 기원하는 촛불 기원행사가 열린다.

시는 또 이씨가 귀환한 후 대규모 환영행사를 갖고 이씨를 하계대회 유치 홍보대사로 위촉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며 다음달 29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막하는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에도 초청할 방침이다.

광주시 교육청도 이씨의 출신 학교인 송원초교, 송원여중, 광주과학고 등 이씨의 모교가 함께 진행하는 환영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광주 서구에서는 이씨의 고향인 광천동 주민들이 풍암 생활체육공원에 심은 ‘이소연 나무’에 표지석을 세울 방침이며 이씨가 다녔던 교회와 동네 주민들도 저마다 무사귀환을 기원하고 이씨를 환영하는 행사를 구상중이다.

광주·전남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센터장 박형순 전남대 약대 교수)는 12일 오후 광주시 북구 오룡동 디자인센터에서 열리는 과학축전에 우주인 이소연씨를 기념하기 위한 부스를 개설, 운영한다.

‘이소연 언니 함께 우주로’라고 명칭된 이 부스에서는 미래 우주인을 꿈꾸는 초등학생들이 모형 로켓을 발사하는 과학실험을 하게 된다. 지원센터는 또 8월께 창립 2주년을 맞아 이소연씨를 특별강사로 초빙, 강연회를 여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윤영기·이종희 기자 penfoot@kwangju.co.kr

Large advertisement for '2008 Hoonam Arts Festival' (2008 호남예술제) featuring a banner with the festival title, dates (April 11-13 and May 1-3), and contact information for Kwangju Daily. The banner includes details about the festival's theme, location, and participating groups.